

# 황인홍 무주군수, 적극행정 강조 장수군, 환경정비구역 지정 승인

### 월례조회서 코로나19 대응·공직기강 확립·국지성 호우 대비 등 당부

황인홍 무주군수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청 내 방송으로 진행된 2일 월례조회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접종, ▲국지성 호우 대비, ▲폭염 및 식중독 등에 대비한 적극행정 추진, ▲기초질서 확립을 기반으로 한 손님 맞이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정부의 한국판 뉴딜 2.0 정책 추진에 따른 대비와 ▲휴가철 공직기강 확립,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등을 강조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윤보영 시인의 '8월 마중'을 낭송하며 월례사를 시작한 황 군수는 "무더위와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들지만 한 여름 햇볕 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힘차게 8월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어 "농촌활력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3백억 원 확보에 이어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에서 국비 49억 원을 확보한 것을 동력으로 삼아 자신 있는 발걸음을 내딛어 보자"고 덧붙였다.

또 "4차 대우행이 시작된 마당에 우리 군민과 지역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 뿐"이라며 "한 치의 오차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도 집중호우와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가 발생했지만 해마다 8월은 재난재해가 많이 발생을 한다며 말문을 연 황인홍 군수는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 재해위험지구와 삼습침수지역, 각종 건설현장 절개지, 산사태가 우려되는 장소 등을 미리 점검·조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을 살피고 가축시설 점검과 운영질서관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최선을 다하자"면서 "휴가철인 것을 감안해 숙박위생업소 청결과 바가지요금,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에 주력하자"고 말했다.

황인홍 군수는 "공직자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게 품위와 본분"이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무시간 준수 등 호트러집 없이 공직에 임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국판 뉴딜 2.0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지자체 주도형 사업을 조기에 발굴·추진하기 위해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아이디어로 국가예산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열정을 발휘해 달라"고 강조했다.

황 군수는 "이 모든 것을 추진하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직장분위기가 우선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긍정적인 마인드와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8월 한 달, 민선 7기 남은 1년 주요현안과 공약사업을 추진해 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무주군에는 2021년 전라북도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6.5.)을 통해 선발된 신규 직원 32명이 임명장을 받고 17개 부서로 배치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가 2일 월례조회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청 내 방송으로 진행했다.

김·조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을 살피고 가축시설 점검과 운영질서관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최선을 다하자"면서 "휴가철인 것을 감안해 숙박위생업소 청결과 바가지요금,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에 주력하자"고 말했다.

황인홍 군수는 "공직자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게 품위와 본분"이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무시간 준수 등 호트러집 없이 공직에 임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국판 뉴딜 2.0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지자체 주도형 사업을 조기에 발굴·추진하기 위해 행정·

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아이디어로 국가예산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열정을 발휘해 달라"고 강조했다.

황 군수는 "이 모든 것을 추진하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직장분위기가 우선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긍정적인 마인드와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8월 한 달, 민선 7기 남은 1년 주요현안과 공약사업을 추진해 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무주군에는 2021년 전라북도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6.5.)을 통해 선발된 신규 직원 32명이 임명장을 받고 17개 부서로 배치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환경정비구역 지정 승인

####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번암면 4개 마을 일대 대상

장수군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번암면 4개 마을(상동, 하동, 원지, 광대) 일대를 대상으로 환경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아 건물의 신·중축 등의 요건이 완화됐다고 2일 밝혔다.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에 따라 도시의 승인을 통해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행위제한 완화 승인을 얻으면 지정된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중축 및 건물 용도 변경 등이 가능해진다.

이번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지역주민 불편사항 중 지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동화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를 위해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019년 10월 환경정비구역 지정요청을 시작했으며, 2020년 5월 지정계획을 완료하고 6월부터 현장실사 등 전라북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종승인을 받았다.

승인 면적은 보호구역내 대지, 학교용지 등 자연취락지구 전체지목으로 14만4,738㎡(381필지)이며, 이번 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행위제한으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마을 주민은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땅이 있어도 활용을 못한 게 안타까웠는데, 이번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동화면 주변이 더욱 활성화 되고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그동안 보호구역으로 묶여 불편함을 겪던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돼 재산권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동화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번암면 4개 마을(상동, 하동, 원지, 광대) 일대를 대상으로 환경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아 건물의 신·중축 등의 요건이 완화됐다고 2일 밝혔다.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에 따라 도시의 승인을 통해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행위제한 완화 승인을 얻으면 지정된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중축 및 건물 용도 변경 등이 가능해진다.

이번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지역주민 불편사항 중 지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동화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를 위해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019년 10월 환경정비구역 지정요청을 시작했으며, 2020년 5월 지정계획을 완료하고 6월부터 현장실사 등 전라북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종승인을 받았다.

승인 면적은 보호구역내 대지, 학교용지 등 자연취락지구 전체지목으로 14만4,738㎡(381필지)이며, 이번 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행위제한으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마을 주민은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땅이 있어도 활용을 못한 게 안타까웠는데, 이번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동화면 주변이 더욱 활성화 되고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그동안 보호구역으로 묶여 불편함을 겪던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돼 재산권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동화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통

### 무주군,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후속 교육

무주군은 농가 경영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가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후속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기본·심화 과정을 이수한 2021년 신규 강소농 및 기존 강소농 30명으로 8월 4일부터 18일까지(오후 2시~6시) 무주군농업기술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강의를 맡은 남서울대학교 윤석근 교수는 첫째 날에 농업회계의 기초와 회계사례, 회계 프로그램 활용하기, 둘째 날에 농산물 생산원가 산출을 위한 계산방법, 셋째 날에 농업회계 실습(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작성)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기자

### 진안군, 농지 이용 실태조사

진안군은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내 소유농지를 대상으로 2021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간 관외 거주자의 신규 취득농지와 농업법인의 소유농지 등이다.

또한 최근 농지법 위반사태가 급증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농막과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 및 공촌사·버섯재배사·양봉사 등 농지 이용행위 건축물의 실정여부 여부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휴경 중이거나 불법 임대 등의 사실이 밝혀지면 농지법에 따라 정문정치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처분 의무 농지의 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 해야 되며 시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 또한 미 처분 시에는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면밀히 추진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전춘성 진안군수, 수박 본격 출하 맞아 현장 행정

### 군 산지유통센터 수박선별장·동향면 수박선별장 2개소 방문

진안군은 여름철 대표 농산물인 진안고원 명품수박의 출하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춘성 군수는 지난달 30일~31일까지 2일간 진안군 산지유통센터 수박선별장과 주 생산지인 동향면 수박선별장 등 2개소를 방문해 현장 행정을 펼쳤다.

방문에는 정미경 농협진안군지부장, 허남규 진안농협 조합장, 백운농협 신용민 조합장, 부귀농협 김영배 조합장, 진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 최종진 대표 등이 동행했다.

전 군수는 선별장을 찾은 농민들과 올해 수박 농사 작황과 수박 시세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더불어 건의



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최종진 조공대표는 "올해 수박 재배면적이 전체적으로 줄고, 짧은 장마기간으로 폭염기간이 길어지는 기상 영향으로, 수박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

지고 있다"며 "수도권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유통업체 등에서 소비자가격이 3만원에 육박할 정도의 고가에 판매되고 있어 지난해 매출액이 지난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춘성 군수는 "농가들이 정성 들여 키운 수박을 진안고원 명품수박 브랜드 이미지화 하는 데에는 엄격한 선별만이 비결이며, 이는 곧 가격과 연결되어 농가들의 소득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수박 선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선별자들을 격려했다. 더불어 "행정에서도 수박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온·오프라인 등 다방면 판로개척을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한우지방공사, 친환경 ICT시범축사 도입 위한 벤치마킹

장수한우지방공사 유전자뱅크 사양관리팀은 친환경 ICT 시범 축사 벤치마킹을 위해 전남 장성군 친환경 ICT 축사(해오름 농장) 시설을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농장은 소들이 외부의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육될 수 있도록 온습도 감지센서, 자동 개폐 윈치커튼, 안개식 자동분무소독기, 자동 on-off 대형 환풍기 팬(fan) 등의 자동 환경 제어시스템을 갖췄다.

자동 환경 제어시스템은 외부 온·습도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축사 내부의 온도를 신선히고 쾌적하게 조절해 소들이 더위 스트레스 없이 최

적의 환경에서 사육될 수 있도록 돕는다.

앞으로 장수한우지방공사는 다른 ICT 축사도 적극 벤치마킹하여, 디지털 ICT 기술을 활용한 시범 축사를 장수군에 도입할 예정이며, 지난해 디지털 ICT 기술을 기반으로 도입한 위내 삼입형 탐지기(발정, 분만, 질병 등)를 적극 이용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최진구 장수한우지방공사장은 "최근 축산 경영 트렌드인 '친환경, 동물복지, ICT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 활용하여 장수한우의 선진화를 이룰 것이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